

‘佛心の 향연’... 큰스님 작품 한자리에

불교전문 갤러리 ‘진경’ 개관 고승 선사화전... 7월 20일까지



만공, 경봉, 성철, 청담, 서용, 중광, 석정, 수안, 화엄, 대취, 일당 스님 등 큰스님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 해운대 청사포 해월정사 인근에 위치한 불교전문 갤러리 ‘진경’ (관장 심진택·사진)이 7월 5일 개관식을 갖고 20일까지 ‘고승 선사화전’을 연다.

이번 고승 선사화전에는 만공 스님의 ‘백초시불(百草示佛)’ 중광 스님의 ‘천하천하 유아독존(天下天下 唯我獨尊)’ 성철 스님의 ‘일원상(圓相)’ 등 30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는 심진택 관장이 30여년 동안 신행 생활을 하며 모아온 것들이다.

심 관장은 “그동안 전국 각 처에서 모아온 작품들이다. 불자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근대 큰스님들의 작품을 통해 스님들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전시 취지를 전했다.

이중 중광 스님의 ‘천하천하유아독존’은 연꽃을 든 아기부처를 통해 부처님 탄생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성철 스님의 일원상은 둥근 원을 통해 우주만유의 본원, 원음 무애한 법의 상징을 보여준다. 세상은 마음, 성품, 진리, 도라는 이름을 억지로 붙였으나 그 어떤 것도 부를 수 없고 무슨 방법으로도 참 모양을 만들 수 없으니 안과 밖이 없고 동서고금이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니 그것은 하나의 원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일원상은 말해준다.

7월 5일 부산 해월정사 인근에 개관 심진택 관장, 30여년 수집한 작품모아 “홈페이지 개설해 온라인 감상 추진”

그렇다면 공자생활을 해왔던 심진택 관장이 이렇게 불교 갤러리를 연 까닭은 무엇일까? 그는 어느날 출가를 권유받았고 이를 거절한 마음의 빛을 갖기 위해 포교를 다짐했다.

“제가 포교원장을 지내신 혜충 스님의 은사인 故보경 스님의 유발상좌예요. 스님께서 저한테 출가를 하라고 하셨는데 거절했죠. 그때부터 출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진경 갤러리가 7월 5일~20일 ‘고승 선사화전’을 마련한다. 사진 왼쪽은 성철 스님의 ‘일원상’, 오른쪽은 중광 스님의 ‘천하천하 유아독존’



포교를 하자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작품을 모았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이렇게 갤러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먼훗날 인연 닿는 사람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진경 갤러리는 불교전문 갤러리의 위상에 맞게 불교문화작품을 전시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려나갈 계획이다. 또

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자들이 온라인으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많은 불교 작품들이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경갤러리를 찾는 많은 불자들에게서 전시를 보고 환희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51)747-2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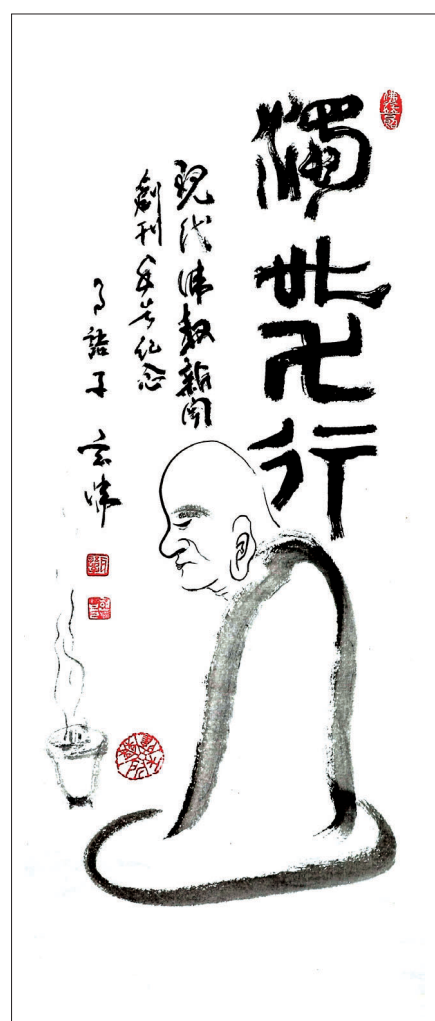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탁세 만행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현대불교신문’ 1천호를 기념해 부처님의 바른행을 일러(가르쳐) 소리 내주기 바라는 마음을 화폭에 담았다. 정론직필의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맑고 청정하게 이끌어 주기를...

홍산 현불 스님

기유년 수원 용주사 출가 무자년 봉암 대희선사 입실건담 선사화 개인전 5회 현 대한불교 승가예술진흥회 이사장 현 화쟁교단 분황중 총재 현 우리불교조계종 총정현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좋은벗풍경소리 38집 발매

“우리 언니 2학년이고 우리 형이 4학년인데 다울이와 다경이는 빵학년이래/고소하고 달콤한 빵은 좋지만 빵학년은 싫어 싫어 정말 싫어요/ 어느날 우리 스님 하시는 말씀 좋망잘망 빵학년이 제일 예쁘대/ 빵학년이 있어서 행복하시대”



풍경소리 38집 앨범 표지

신나는 ‘물놀이’ 시원한 바람과 푸르른 여름의 향기를 노래하는 덕신 스님의 ‘여름향기’ 등 총 8곡의 노래와 반주음악을 담았다.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서른여덟째 앨범 ‘풍경소리 38집’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울망잘망 조잘대는 천진불 다울이와 다경이의 빵학년 이야기를 담았다. ‘나는야 빵학년’ 계곡물에 점병처럼 헤엄치고 물장난하는 한 여름의

한편,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집은 1994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겨울 불교학교를 위해 발표해왔다. 풍경소리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 등의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제2회 영축문화대상 후보자 모집

봉사상·학술상... 10월 30일까지

(재)영축문화재단은 노천당 월하대종사의 유지를 받드는 제2회 영축문화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수상대상은 봉사상과 학술상 각 1명씩이며, 조계종 재적승려 및 재가불자로 해당분야 수공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된다. 추천은 소속기관 대표자 또

는 조계종 재적사찰 주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수행이력서, 공적서, 추천서, 공적증빙자료, 재적증명서(해당자), 조계종 승려증 등이다.

모집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며 시상식은 2015년 1월1일 월하대종사 추모대례에서 실시한다. (052)246-8061 정혜숙 기자

천태종 제2회 원각서예대전 공모

8월 25일~28일 접수... 글자수 200자 이상 가능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이 제2회 원각(圓覺)서예대전을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한글·한문·국한문·소자·훈서·사경이며, 작품규격은 전지, 반절지, 가로로 제출해야 한다. 사경은 전지 이내로 주제는 자유이며 글자 수는 200자 이상이어야 한다.

출품 수는 1인 3점 이내이며, 출품료는 1점당 2만원이며 출품 자격은 국적이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며 누구나 가능하다. (단 미협·서협·서가협 초대(추진)작가 이상은 응모할 수 없다)

작품은 8월 25~28일까지 천태종 서울사무소(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오피스텔 102동 308호)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하면 접수증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한다. 원서는 원각서예대전 사무국에서 배부하며, 원서를 교부받지 않고 출품할 경우 출품자의 본명(출품료 입금자와 동일), 주소, 연락처(일반전화와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등을 별지로 첨부해야 한다.

대상(천태종 총정승) 1명에는 상패와 상금 700만원, 최우수상(천태종 총무원장상) 1명에는 상패와 상금 400만원, 우수



원각서예대전 포스터

작품은 천태종에 귀속되며,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는 ‘취호’ 한다.

그리고 원각서예대전에서 12점을 취득하면 초대작가로 인정한다. 대상은 10점, 최우수상에는 7점, 우수상에는 5점, 장려상에는 4점, 특선에는 3점, 입선에는 1점이 주어지며, 복수 입상시 최상위점수만 인정한다. 심사결과는 9월 3일을 전후로 천태종 홈페이지(www.cheontae.org)와 금강신문 홈페이지(www.ggbn.co.kr)에 발표한다. 시상식과 전시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02)723-1559 정혜숙 기자

현등사 사리 대중과 만나다

7월 1일 조계사서 이운식

도난문화재로 삼성문화재단에서 회수해온 현등사 사리가 대중에게 공개 됐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법)은 7월 1일 조계사에서 사리 이운식을 갖고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고불사에서 현등사 주지 선우 스님은 “고불사를 인연으로 이 땅의 모든 이들과 이 자리에 모인 대중 모두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행동하는 참사람이 되도록 쉽고 맛있는 아름다운 깨침을 이룩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법 스님은 “부처님의 친신사리 친견으로 국민안 남북통일 세계평화 불국 정토를 이루길 기원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불교 중앙박물관 같은 날 오후 2014년

특별전 ‘열반, 궁극의 행복’ 전 개막식을 갖고 7월 2일부터 현등사 사리 및 사리구,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보물 제 176호)와 최초 불상 복장인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 제사리호(국보 제233호) 등 국보 4건, 보물 17건 등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 17건을 대중들에게 공개했다. 전시는 8월 24일까지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로회 의장 밀운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법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교육원장 현승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해 전시를 관람했다.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열반은 자신의 마음을 편안한 곳으로 이끄는 안식처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번 전시를 통해 궁극의 행복을 저마다 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불교중앙박물관은 재현한 현등사 사리탑과 사리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참석 내빈들이 개막식 이후 전시장 리운딩 장면.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O.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가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전임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